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

박 정 은** · 김 건 희***

Mother's Perspective on Infant Clas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Park, Joung-Eun** · Kim, Keon Hee***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perspectives of mother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regarding in infant classe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Method]** According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mother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who were placed in infant classes at a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Results]** The themes derived through data analysis were a class to looking forward and disappointing class, disire for classes with peers, and if only I had known about special education information earlier. Mothers expressed gratitude for receiving help through diverse and prepared classes that took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and consultation with special educators. On the other hand, they said they were bitter about the use of textbooks that did not match their level and the simple and uninteresting classes. In addition, mother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were disappointed about the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and wished for a class where infants with disabilities could have social interactions with their peers. They also expressed regret that special education could not be started sooner due to lack of informat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expertise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operate classes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nd that promotion to revitalize special education services is urgent, especially the needs of mothers raising infant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and improve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 system so that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can play its role and function.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infant class, Early intervention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Mother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
Teacher of Kindergarten attached to Hanmaeum Elementary School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mykhk@daegu.ac.kr)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Daegu Univ.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발달에서 만 0-2세의 영아시기는 신체와 뇌의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능력이 발달하고 경험과 자극을 통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장애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양육 지원, 조기중재가 이루어지면 장애 발생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윤경(2013)은 장애영아 교육지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특수학교 영아학급,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영아의 부모 면담을 통해, 조기 선별과 장애진단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애진단 이후 장애영아 가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박현옥, 이정현과 김성애 외(2010)는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IFSP)의 가정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정방문지도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장애영아 학부모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었으며 장애영아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영아 교육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를 알 수 있다.

장애영아 교육 지원은 2004년부터 조기개입 서비스와 관련된 논문이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발표되었고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지원 실태에 대한 논문들이 2010년을 시작으로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주제이다(김태영, 2014; 김태영, 2021). 장애영·유아 가족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는 장애영·유아 부모, 가족 심리와 정서, 양육 스트레스 경감과 대처 방법, 가족지원 요구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국외 연구는 장애영아 가족의 특성과 가족 전문가 간의 협력,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장애영아 가족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조현근, 2013). 국내와 국외의 연구 동향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영아 가족지원의 방향과 흐름을 검토하고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실태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김미라(2013)는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영아 교육지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영아 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영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질 높은 담당교사의 배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영아 담당교사에 대해서 남경옥, 이은정, 신기현(2015)은 장애영아 담당교사들은 교사 양성과정과 이후 교사 재교육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은정(2016)에 의하면 장애영아 교육에 중점을 둔 연수가 많지 않으며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이 장애유아 교육과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은 장애영아 담당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제 기술과 지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영아 담당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영아 조기중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적합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은정(2016)은 가족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장애영아 담당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점, 이원화된 지원시스템의 문제, 행정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요구, 국가와 사회 지지기반이 약한 것, 장애영아 교육 및 보육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기개입과 관련된 법체제를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 특수교육에서의 장애영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영아의 조기중재 및 가족지원과 관련된 시스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도 부족하여 효과적인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영아 교육 운영 실태와 지원요구를 주제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홍은숙, 노진아, 이미애, 2010; 홍은숙, 박경옥, 2011).

장애영아 교육지원에 관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관한 질적연구는 매우 적었다. 장애영아와 장애유아가 구분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전체를 하나의 교육대상자의 범주에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연구 내용도 지역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더불어 장애영아의 조기교육 및 조기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조기중재 서비스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공교육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영아 교육지원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연구나 기록은 미흡하였다.

장애영아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시행된 것은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장애영아 부모의 입장을 연구한 것은 적은 편이다(조윤경, 2012). 이소영, 이소현(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 영유아 관련 국·내외 연구에서 단일대상연구와 실험연구가 대부분이고 주된 연구방법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과의 효과적인 협력이 장애영아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애영아의 특성과 함께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영아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자 입장이 아닌 서비스 수혜자 입장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현재 배치되어 있거나 과거에 배치된 경험이 있는 장애영·유아 어머니들의 경험을 통하여 영아학급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영·유아 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D시와 U시에 거주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의 어머니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배치될 당시 자녀들은 만 1세에서 만 2세 사이였다. D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은 주 2회, 1회당 30분씩 진행되었고 U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은 주 2회, 1회당 35분씩 이루어졌다. D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교사는 유아특수교사 3년차로 20대 중반이며, U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교사는 유아특수교사 1년차로 20대 중반이다.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D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유아특수교사의 협조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에게 본 연구에 대하여 문서로 안내하였고 세 명의 어머니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U시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의 협조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경험이 있는 학부모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어머니에게도 연구에 대해 안내할 기회가 생겼고 같은 지역의 네 명의 어머니들이 추가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영아학급 수업을 받은 장애영아의 부모 중 자녀의 양육과 조기중재에 밀접한 역할을 하는 30대에서 40대의 어머니로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인접 도시 두 군데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1> 같다. <표 1>에서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ame	Age	Child's gender	Disabiliites	Age at the time of infant class	Period at the infant class	Types of class	Rigion
Kim Hae Ryn	Mid 40s	Female	Cerebral Palsy	1 year old	1 year	Home visiting	U city
Kim Su Hyun	Mid 40s	Female	Cerebral Palsy	2 years old	6 months	Home visiting	U city
Park Si Hu	Mid 40s	Male	developmental disabilities	2 years old	9 months	Home visiting	U city
Uoo Ji Yeon	early 40s	Female	Cerebral Palsy	2 years old	8 months	Home visiting	U city
Ji Yu Seong	late 30s	Female	Cerebral Palsy	2 years old	3 months	Home visiting	U city
Kim Saet Byul	Mid 30s	Female	Cerebral Palsy	2 years old	9 months	Center visiting	D city
Kim Won Joon	Mid 30s	Male	developmental disabilities	2 years old	9 months	Center visiting	D city
Park Min Hyuk	Mid 30s	Male	Cerebral Palsy/ visual impairment	2 years old	1 year 6 months	Home visiting	D city

2. 심층 면담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은 일대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와의 첫 번째 심층 면담을 마친 후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다시 연구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가 질문은 직접 만나서 진행하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면담 시 실시했던 주요 질문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심층 면담을 하며 장애가 있는 자녀의 장애 특성,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을 가졌고, 영아학급 경험에 관한 대화가 깊어지면서 어머니들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 면담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면담 내용들을 녹음하였다. 면담을 마친 이후 면담한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으며 전사본은 총 82페이지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직후 녹음된 모든 자료를 그대로 전사하였고 면담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파기할 것임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하였다.

3. 자료 분석

녹음 자료를 1차 전사한 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전사한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참여자 어머니에게 e-mail로 전사본을 보내어 전사본이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 개별로 전사된 자료를 귀납적 분석 절차인 부호화(open coding), 범주화(categories), 추상화(abstraction) 과정을 진행하면서 분석하였다. 전사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의미 있는 문장마다 한글 프로그램의 메모 기능으로 제목을 붙이고, 전사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제목을 수정, 추가하였다. 면담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가능한 의미 있고 많은 제목으로 전사 내용을 묘사할 수 있도록 부호화(coding)하였다. 전사 내용 모두에 대한 부호화(coding)가 마무리되면 유사한 의미를 지니거나 같은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부호들을 모아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개념을 가진 제목으로 범주화(Burnard, 1991)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에서 분류된 상위 범주는 수업을 기다리는 장애영아의 어머니들, 감사와 실망, 씩씩한 수업, 또래와의 수업 기대, 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 너무 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찾아 삼만리, 늦어지는 특수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 범주들로부터 '기다려지는 수업 그리고 아쉬운 수업, 또래와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바람, 특수교육 관련 정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최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기다려지는 수업 그리고 아쉬운 수업

1) 수업이 기다려짐

어머니들은 장애영아가 수업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하여 수업하는 날을 기다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김수연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어떻게 보면 놀이 수업이잖아요. 선생님이 한 30분 이상 하셨는데 손을 한 번도 안 빠는거예요. 되게 좋아했어요...(중략)...감각 오감 수업 있잖아요. 이제 뭐 콩 같은 거 밟게도 해주시고 아니면 만들어서 흔들어 보게도 하고 여러 가지 오감 수업을 다 하셨는데, 올 때마다 너무 좋아했어요.

(U시 김수연 어머니)

김수연 어머니는 장애영아가 놀이를 하는 동안 손을 빨지 않았고 활동을 좋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여러 가지 감각 활동을 하면서 장애영아가 손을 빠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여 참여한 것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오감 수업을 통해 놀이에 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아와 어머니 모두 매우 만족하여 수업 시간마다 즐겁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우지연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저도 이런 유치원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이 정말 짧은 걸 아는 데...(중략)...되게(매우)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그 때 기억에는 참 선생님께서 열심히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방문 이런 거 엄마들 만나면 이런 게 있다더라 해보라고 했던 것도 많았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했었거든요.

(U시 우지연 어머니)

유치원 교사 경험이 있는 우지연 어머니는 집중력이 짧은 장애영아가 수업을 좋아하며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장애영아가 신기해하고 좋아했다는 것에서 교사가 준비한 활동이 장애영아의 호감을 이끌고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임을 알 수 있으며 특수교사가 열심히 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영아학급 방문 수업을 주변 어머니들에게 추천할 만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혁 어머니도 영아학급에 대해 만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였다.

평소 밟아 볼 수 없었던 낙엽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생크림 같은 것도 갖고 와서 온몸으로 혼자 촉감 경험 다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거품 같은 것도 가져 오시고...(중략)...되게(매우) 시각 아이들은 예민하거든요. 엄청 예민해요. 그런 거 거리낌 없이 놀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느껴볼 수 있게...저희 민혁이는 선생님 올 때마다 기다렸어요. 하하(웃음). 저희는 아쉽죠. 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깐 아쉽죠.

(D시 박민혁 어머니)

박민혁 어머니는 특수교사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준비해 준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시각장애로 인해 매우 예민한 장애영아가 다양한 감각 활동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는 장애영아가 무엇이든 느껴 볼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영아는 특수교사와의 즐거운 놀이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장애영아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준비된 수업에 대해 어머니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주었던 교사에 대하여 우지연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편견이 없으시잖아요. 다정하셨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선생

님께서 노력...(중략)... '낮 가리지 않고 선생님과 잘 맞아서 엄마처럼 재미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딱! 편안하게!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조금 쉬었다가 "그래 지연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했다가 할까?" 이러면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할지(웃음) 융통성 있게 수업을 해 주신 거.

(U시 우지연 어머니)

편견이 없고 다정한 특수교사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한 우지연 어머니는 자녀가 낮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기를 원하였고 특수교사가 장애영아에게 맞추어서 엄마처럼 친근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영아의 활동 속도나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활동의 난이도나 흐름을 조절하며 장애영아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아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적절하게 활동 수준을 조절하며 장애영아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 수업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셋별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선생님이 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보내주고 이렇게 하셨어요...(중략)...선생님이 거기에 맞추어 주셨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어요. 제 꿈이 원래 특수교사였거든요...(중략)...선생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D시 김셋별 어머니)

김셋별 어머니는 장애영아가 놀잇감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활동에 특수교사가 맞추어 주었다며 좋았던 기억밖에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꿈이 특수교사였다고 하며 특수교사를 보면 존경스럽다고 하였다. 장애영아의 감정과 컨디션을 고려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수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장애영아가 접해 볼 수 있도록 선호도와 선택을 존중한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2) 아쉬움이 있는 수업

어머니들은 고맙고 만족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였으나 반면에 교사가 가지고 오는 놀잇감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며 다양하지 않고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수업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었다.

장난감 위주로 많이 갖고 와 가지고 놀다 가고...(중략)...이게 수 부분인지, 언어 부분인지, 감각 부분인지 영역이 나누어진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U시 김혜린 어머니)

김혜린 어머니는 특수교사가 장난감 위주로 가져와 놀다 가고 수업에 사용하는 놀이감이 어떤 영역을 위한 교구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장난감 위주의 수업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자녀의 발달 영역에 따라 적절한 교재 교구의 활용을 기대하였으나 수업에서 장난감이 구분되어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장난감이나 교구가 장애영아의 수업 활동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구분이 모호한 장난감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교사의 수업 준비에 있어서 놀이 및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재교구 연구와 활용이 부족하였음을 나타냈다.

혜린이 같은 경우는 듣고 수용언어는 어느 정도 됐었고, 표현언어가 안됐었는데 자기가 계속 수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되는데, 뇌병변이라든가 지체가 심한 친구들은(친구들의 엄마들 말로는), 선생님이 와 가지고...(중략)...책을 읽어준다라든가 다른 상호작용이 너무 안 되는 그런 흐(웃음) 활동을 하시긴 하신다더라고요. 허허(웃음)

(U시 김혜린 어머니)

김혜린 어머니는 수용언어가 가능하고 특수교사와의 교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주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빌어 불만을 표현하였다. '상호작용이 너무 안된 그런 활동을 하시긴 하신다더라고요.' 라는 말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들의 경험에서도 수업 중에 책을 읽어주거나 상호작용이 부족한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허탈하게 웃는 장애영아의 어머니로부터 당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영아의 어머니가 조기중재의 참여자가 아니었으며 한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불만, 초조함을 지닌 채 영아학급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수업의 다양성을 바라는 지유성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거[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됐다고 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걸 처음 해 봐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오셨는데 처음 그걸(특수교육)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흐흐(웃음) 이제 막 특수교육 학교 나오시고 처음으로 배정받으셔서 오셨던 분이라고 하셔서...(중략)...이제 저희 아이가 뇌병변 1급이라고 한 것만 그냥 들으시고 약간 그런 정말 그 누워있는 아이들에 맞추어서만 해오셨더라고요...(중략)...그 좀 다양한 걸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 시간에도 그냥 촉감 공인가? 그런 거 하나 가져오시고 그것만 거의 한 삼십 분 하다가 흐흐(웃음) 끝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3회 정도 계속 책도 한 권 정도 가져오셔서 저희 애도 별로 흐흐(웃음) 이제 너무 지루해하고 그래서

그때 한 달도 다 못하고 제가 그냥 취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U시 지유성 어머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자녀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지유성 어머니는 특수교육을 처음 하는 신규교사가 온 것에 대해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영아학급 수업과 교재교구에 대하여 특수교사가 뇌병변 1급이라는 정보만으로 중증 장애영아들에게 맞추어 수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의 종류와 장애 정도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은 있으나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교사가 장애영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문서의 정보에 의존하여 교재교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영아를 만난 이후에도 수업 중 다양한 교재교구 제시가 부족하였으며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에게 다양한 수업을 원한다고 어머니의 의견을 말하였으나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촉감 공과 책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한 것에서 장애영아의 어머니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장애영아가 수업을 지루해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활동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을 취소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영아가 흥미를 갖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결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취소한 것은 장애영아의 어머니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장애영아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는 특수교사와 영아학급 수업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그냥 뭐 늘상 치료실에서 듣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소리내어 웃음) 뭐 이런 흐흐(웃음) 이 정도? 선생님이 계속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하하하(소리내어 웃음) 본인이 생각했던 뇌병변 1급 아이처럼 안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중략)...근데 저희 아이는 그때도 뭐 그 대근육만 좀 그랬지 다른 거는 별로 인지나 이런 거는 정상은 아니어도 따라가기는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계속 “제가 생각했던거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런 말씀을 매 수업 시간마다 많이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다 끝났네? 이제 뭐하지?” 흐흐흐(웃음) 계속 이렇게.

(U시 지유성 어머니)

지유성 어머니는 특수교사의 말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하였다. 특수교사가 다양한 경

힘을 쏟게 해주라는 말을 하였으나 치료실에서 항상 듣던 말이었다며 장애영아를 위하여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서 어머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특수교사가 수업 중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라며 수업 시간마다 말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이론으로 알고 있는 장애의 종류와 특성이 실제 현장에서 만난 장애 영아와 다른 것에 당황하며 장애영아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개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애영아의 발달 및 조기증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며 접근해야 할지 전반적인 면에서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경험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고스란히 수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교사는 수업을 하다가 진행한 활동이 끝나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영아학급 수업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유성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는 내내 황당해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특수교사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김혜린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진짜 선생님이 준비하는 수업 방식이라든가 애 특성에 대한 그게 좀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중략)...진짜 장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점을 강화시키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애한테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게 아니고(웃음)...(중략)...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니까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U시 김혜린 어머니)

김혜린 어머니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강점을 키워주는 수업을 원하였다. 장애영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당장 행동 수행에 목표를 두기보다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을 강화하면서 관련된 다른 영역의 발달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영아의 어머니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으나 영아학급 수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였으며 영아학급 수업이 교사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어머니들은 영아학급 수업에 대한 정보나 피드백이 없었고 가정에서 장애영아를 양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다음은 김원준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하루에 이렇게 하고 계획 같은 건 다 있잖아요...(중략)...서류는 일단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거고요. 그날그날 해 왔다는 거는 교육청(지원센터)이나 피드백이 이렇게 느낌적으로 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선생님 사진 찍기에 바빠서 애들 치료보다는 부모들 보여주기식으로 사진 찍고 뭐 해달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흐흐(웃음)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흐흐흐(길게 웃으며 이야기 함) 이번에 뭐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D시 김원준 어머니)

김원준 어머니는 수업에 대한 계획은 문서로 나타나 있으나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하였다. 교육계획서가 그저 냉장고에 붙어 있을 뿐이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피드백이 없었던 점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나타냈다. 활동에 방해될 정도의 보여주기식의 사진을 바라지는 않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피드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활동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학급 수업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장애영아의 수업과 관련된 정보가 가족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장애영아 조기중재에 가족 참여가 부족하였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준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선생님이...(중략)...교육계획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이런 걸로 신청하겠다.' 그래서 뭐 저보고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인은 하는데 '저도(웃음) 한 부 갖겠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해 가지고 프린트해 달라니까 해 주시더라고요...(중략)...항상 하고 나서 저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졸업할 때쯤 돼서 스케치북이라든지 했던 거 있잖아요...(중략)...그래도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거는 했구나...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D시 김원준 어머니)

김원준 어머니는 교육계획을 인쇄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때의 상황이 황당하였음을 웃음으로 나타냈다. 어머니가 요청하여 교육계획이 공유되는 상황이 불만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특수교사가 수업 후 활동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영아학급 수업과 활동 내용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고 수업의 진행이나 자녀의 발달 변화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치북을 보며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거는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영아학급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어머니는 내내 불안하고 궁금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은 영아학급 수업의 내용과 활동 수준에 대하여 특수교사에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였으나 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인지적인거 뭐 자조적인거 뭐 사회성 다 포도송이처럼 다 중요한데...(중략)... "선생님, 이때 즈음부터 색깔을 흐흐(웃음) 알아야 할 텐데 색깔 좀 해주세요." 요청하면...(중략)...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 녹색, 다섯 개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카든(라고 하면)...(중략)..."

“다섯 개는 어렵다 두 개, 세 개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D시 김원준 어머니)

김원준 어머니는 필요한 활동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생각을 특수교사에게 말하였고 다섯 가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활동을 요청하였으나 교사는 두세 개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와 특수교사와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와 함께 하는 수업에 대한 바람

어머니들은 영아학급에서 특수교사와 장애영아의 일대일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래와 함께 하는 수업을 원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박시후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친구가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 했는데 중간에 (친구가) 어린이집을 가서 시후랑 같이 수업할 친구가 없었어요...(중략)...소통 같은 건 없었어요... 일단 만난 적이 없고.

(U시 박시후 어머니)

박시후 어머니는 또래의 다른 친구와 함께 수업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영아학급 수업을 통해 자녀가 친구를 만나 소통하기를 원하였고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교사와 유아 일대일 수업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의 형태가 일대일 수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었고 이처럼 일률적인 형태는 조기중재가 진행되는 내내 이어졌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원준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선생님 영혼 없다는 게...(중략)...워낙 선생님하고 둘이 있다 보니까...(중략)...사회성 차이더라도 친구들하고 하는거...(중략)...제 입장에서는 준이가 일단 보행도 되고! 인지도 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도 되고! 욕심이 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도 드는데 뭐 조금 선생님이랑만 하는 것 보다는!(강한 어조로)...(중략)...애가 느낄 수 있는 소속감 같은 거...

(D시 김원준 어머니)

김원준 어머니는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장애영아와 교사의 일대일 수업만 진행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장애영아의 사회성 발달에도 관

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를 통해 장애영아가 인지, 보행, 발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여 장애영아가 다른 친구들이나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욕심이 나서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어머니가 원하는 수업 형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도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이 장애영아와 특수교사의 일대일 형태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넘어 보고자 하는 마음을 '어머니의 욕심'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지연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아무래도 친구 관계가 켈 중요하잖아요. 사회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중략)...애가 계속 설 수 있는 자리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중략)...그래서 그때만이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중략)...애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이런 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봐야 하는 건지.

(U시 우지연 어머니)

우지연 어머니는 장애영아가 자라면서 타인과 관계할 기회가 적어질 것을 염려하여 영아기에서만이라도 또래와의 관계 형성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장애영아 조기중재 서비스는 교사와 장애영아의 일대일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에 대한 바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 영아에게 또래가 필요함에 대해서는 우지연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지연이도 친구와의 관계도 부족한데 친구들도 그리워 하구요...(중략)...엄마들이 요구하고 이야기해야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U시 우지연 어머니)

우지연 어머니는 자녀가 친구를 그리워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수교육과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머니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함을 나타내었다.

3. 특수교육 관련 정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에 대해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은 우지연 어머니가 언급한 내용이다.

따로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할 때는 안내가 없었어요...(중략)...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서...(중략)...다른 지역에 있는 어머니가 얘기해 주셔가지고(주셔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대상자가 되어가지고(되어서) 그렇게 가정방문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 방문 요런 거 엄마들 만나면 이런 게 있다더라...(중략)...얘기도 많이 해주고 했었거든요.

(U시 우지연 어머니)

우지연 어머니는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할 때 특수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선별검사를 하지만 특수교육을 시작하는 방법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지연 어머니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의 어머니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서 영아학급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애영아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조기중재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와 같은 정보 부족이 조기중재의 시작을 늦추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박민혁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U시나 S시나 K시에 있는 엄마들은 하하하(웃음). 서울 아니면 대구인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하하(웃음). 그 엄마들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대구는 장애 쪽에는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도...(중략)...슬플 지경인데...다른 지역은 엄마들은 더 할 거예요. 그렇게 찾을 길이 실은 없어요. 여러모로 진짜 카페를 통해서 겨우겨우 연락처 하나 받아가지고 그 분이 바쁘면 연락이 안되니까 그래도 다행히 연결된 분이 마음을 또 오픈을 해 주셔가지고(해 주셔서) 정보를 받았었고. 그렇게 이용 안 하면 전혀 정보 같은 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얘기는 시각이 일반 시각이 아니라서 희귀성이거든요. 더 찾기가 힘들죠.

(D시 박민혁 어머니)

박민혁 어머니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였다. 서울과 대구는 장애 관련 서비스가 활발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나마 해당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도 슬픈 일이라고 말하였다. 장애영아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활발한 지원이 있는 곳이라 하여도 '슬플 지경'이라는 표현을 통해 장애영아를 키우며 특수교육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머니에게는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도 같은 장애영아를 둔 엄마를 찾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까지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수교육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어머니들이 조기중재를 시작하기가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늦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하는 게 좋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 때 알고 유치원 특수학급 이야기도 알고 어린이집이랑 영아학급이랑 고민도 하게 되고...

(U시 박시후 어머니)

박시후 어머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수업을 더 일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에 대해 미리 알고 고민하며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서 영아학급 수업에 이어 이번에 유치원 특수학급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준 어머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도 나름대로 알고 영아학급 갔지만은 빨리 서두른다고 갔지만은...(중략)...빨리 줘고 싶었는데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한 6개월 정도 기다렸나? 어디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3월달부터 들어간 기억이 나거든요...(중략)...그 시간 동안 또 아까운 거 있었어요.

(D시 김원준 어머니)

빨리 특수교육을 받고 싶었던 김원준 어머니는 서둘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찾았으나 빈자리가 없어서 기다렸다고 하였다. 다른 지역과 달리 6개월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다고 하였다. 당장 특수교육이 필요하였지만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영아의 수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배치를 신청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영아학급 수업을 기다리는 상황이 조기 개입의 시기를 늦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서비스 수혜자의 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영아학급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과 함께 교재 교구의 활용과 수업 준비 등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내었다. 이는 김은경(2017)의 연구에서 영아학급에 대해 부모의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양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일치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영아학급 수업 교재 교구의 다양성 부족 등에 대해 의견을 제

시하였으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장애영아 조기중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영아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이 아직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대상 영아들의 어머니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영아를 지도하는 유아특수교사들도 장애유형 및 특징에 따른 교육과정 실행 지침이 없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김지영, 2020; 주정권, 박승철, 2016; 홍은숙, 박경옥, 2011; 임아름, 조현근, 2024). 특수교육대상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교사들은 학급을 운영하고 영아들의 특성에 맞는 교구를 제작하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홍은숙, 박경옥, 2011; 주정권, 박승철, 2016). 그러므로 장애영아 교육중재를 위해서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들도 개발 연구되어야 한다(이민지, 2023; 박도연, 2013).

영아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또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질이 영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 되었다(이소현, 2014; 이소현, 조윤경, 2004; 홍은숙, 2008; 박현옥 외, 2010; 이소현 외, 2005; 조윤경, 2012; 홍은숙, 2008).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김은경, 2017; 김은경, 노진아, 2018; 박은혜, 이병인, 김현숙, 2003; 박현옥, 2009; 윤미경, 2014;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7)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박현옥(2009)은 장애영아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전형적인 발달과 비전형적인 발달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 영아 진단 능력, 영아와의 상호작용 능력, 부모 상담 능력, 장애 영아에게 필요한 관련 서비스 이해 능력, 강화된 교사 책무성에 대한 수용 및 준비와 부모들의 요구 및 갈등 이해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민, 임해주, 김경화(2014)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각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및 분야별로 특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아교육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외의 사정도 유사하다. Maye, Edmunds, Stone-MacDonald와 Carter(2023)는 미국에서도 자폐성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교육 센터에서 장애영아를 지도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Bejnö, Bölte, Linder, Långh, Odom과 Roll-Pettersson(2021)도 자폐성장애영유아들을 위해서는 교육시키는 사람들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andall, McLeanr, Smith(2000)와 Zhenga, Maudea, Brothersona와 Merritts(2016)는 장애영유아들의 조기중재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 영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겠으나 장애영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정의 마련과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영아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전문가들의 전문성향상과 역량강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수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장애영아 조기중재의 질적 실행을 이끌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사 양성 과정에서 조기개입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또래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교사와 장애영아 단둘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어머니들에게는 재미가 없는 수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신 장애영아가 어릴 때부터 여러 명의 친구들과 같은 곳에서 함께 교육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요구는 장애영아의 교육기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선미, 2010). 임영옥과 조광순(2007)의 연구에 따르면 발달지체영아들을 위한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영아의 사회성과 상호작용이며, 또래와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놀이를 통해서 발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유아들이 장애가 있는 유아나 장애가 없는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그들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가 강조되고 있다. 또래와의 놀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능력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학습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키므로 중요하다(Maye et al. 2020; Lin, Chen, Justice, Sawyer, 2019; West, Brown, Grego, Johnson, 2007; Bejnö et al. 2021). Nix, Bierma, Domitrovichi와 Gil(2013)은 영유아기 때 다른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이 미래의 학업성취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박연희와 조윤경(2023)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영아통합반, 특히 만 2세 학급에서 일반 또래들이 장애영아들을 지원해 주는 또래 지원의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합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또래간의 관계는 발달지체영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장애 영아의 발달을 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통합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조숙영, 2019, 김지영, 2020).

또한 영아학급 수업은 장애영아 개개인과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운영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임영옥, 조광순, 2007).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영아 교육지원을 위하여 각 서비스 영역별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체제를 마련하고, 역할 분담을 이루어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기능 중 하나인 진단 및 배치에 대한 전문가, 전환 교육 전문가, 치료지원 전문가, 보조 공학 전문가, 인권교육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적인 지원기구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중심 프로그램의 질적 실행을 위하여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과 전문가

간의 유연한 협력 방안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박현옥, 2009; 백유순, 2008; 조운경, 2012). 이처럼 조기중재 실행자로서 보다 체계적인 전문가 훈련 및 연수는 조기중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조기중재는 단순하게 목표 행동 수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놀이를 통하여 장애영유아의 강점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으로의 확장하여 장애영유아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박도연, 2013; 이소현, 2000, 2006, 2007; 조운경, 2012, 2017; 홍은숙, 2008; 홍은숙, 박경옥, 2011).

어머니들은 영아학급 또래와의 놀이와 다양한 경험 등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장애영아 조기중재 시스템을 확장하고,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의 요구조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조기중재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소영, 이소현, 2009).

셋째,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일찍 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장애 지원 관련 서비스가 활발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곳의 서비스 차이가 있다며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장애영아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힘들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홍은숙, 박경옥(2011)의 장애영아 전담교사 그룹 면담을 통한 연구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참여하는 영아 수와 현황에 있어서 지역교육청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마다 장애영아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소현, 조운경(2004)은 발달지체 영아들의 서비스 수혜의 지역 편중성에 대한 지역 분포를 살펴본 때 서울 및 경인 지역에 영리 및 비영리 사설 기관과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대부분이 위치하여 대도시 위주의 특수교육 지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장애영아 조기중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조기중재 서비스 지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지원체제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및 장애 위험이나 발달지체를 경험하고 있는 영아들을 위한 조기중재 서비스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장애영아의 치료 활동, 교육 활동, 경제적 지원만 두드러질 뿐 장애영아와 가족, 그 밖의 중재 서비스 지원을 위한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불안정하고 미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교육체계를 통해서 투자한 교육적 노력이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가 어려운 불안한 형태의 지원체계가 형성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김경민, 2020; 이소현, 2014).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관점을 통해 나타난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와 더불어 특수교육지원센터 조기중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조운경, 김수진, 송영희, 2016)하여, 장애영아 교육지원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

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질적인 조기중재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영아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을 찾아 고군분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는 경험을 하였다.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보로의 접근은 매우 어려우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교육정보 제공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조기중재 서비스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영아 어머니가 홀로 찾아 헤매는 곳이 아닌 장애영아와 가족을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가깝고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든 장애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반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영유아의 어머니들로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ck, Y. S. (2008). Suggestions for Family-centered Practices of Early Intervention and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8(3), 89-111.
- [백유순 (2008). 조기 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서의 가족중심 실재를 위한 실천 과제. **유아특수교육연구**, 8(3), 89-111.]
- Bejnö, H., Bölte, S., Linder, N., Lång, U., Odom, S. L., & Roll-Pettersson, L. (2022). From someone who may cause trouble to someone you can play with: Stakeholders' perspectives on preschool program quality for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22, 1-19.
- Cho, Y. K. (2012). The Perception of Service Providers on Current Status of and Needs for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Children under Age 3 with Developmental Delay.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6(1), 39-66.
- [조윤경 (2012). 발달지체 영아의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 현황 및 지원요구: 서비스 제공자 관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6(1), 39-66.]
- Cho, Y. K. (2013). Connective Procedure of Disability Finding, Diagnosis and Early Intervention Service and Support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Under 3 Year Old.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300-326.
- [조윤경 (2013).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부모를 통해 본 장애 발견과 진단 및 조기개입 연계과정과 지원요구. **보건사회연구**, 33(1), 300-326.]
- Cho, Y. K., Kim, S. J., & Song, Y. H. (20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garding Under the Age of 36 Months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Literature Review of the Studies Published in 2006~2015.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3), 23-53.
-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6). 장애 관련 영아 대상 국내 연구 동향 분석: 2006년~2015년. **유아특수교육연구**, 16(3), 23-53.]
- Cho, Y. K., Kim, S. J., & Song, Y. H. (2017). The Feasibility of the Main Factors in Early Intervention for Developmental Delayed Infants and Toddlers: Based on the Group Interviews with the Interventionist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7(1), 115-145.
-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7). 현장 전문가 소집단 면담을 통한 발달지체 영아 조기개입 주요 요소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17(1), 115-145.]
- Cho, Y. K., Kim, S. J., & Song, Y. H. (2017). The Present Implementation Status,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of Early Intervention for Developmental Delayed Infants and Toddlers: Based on the Special Educators' Interview at Five Typed Service Institution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6(1), 35-64.
-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7). 발달지체 영아 조기개입의 시행 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5개 기관 유형 특수교사 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16(1), 35-64.]
- Cho, Y. K., & Song, J. (2012). Implementation Difficulties and Politic Support Needs of Director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95-118.
- [조윤경, 송정 (2012). 어린이집 원장의 장애아 보육 실행 어려움과 정책지원 요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95-118.]
- Hong, E. S. (2008). A Qualitative Inquiry on Suggestion for Early Interven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3(2), 259-284.
- [홍은숙 (2008). 장애영아교육 및 조기개입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적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2), 259-284.]
- Hong, E. S., Noh, J. A., & Lee, M. A. (2010). Current Status and Support Needs for 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rogram of Loc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2), 1-22.
-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 및 지원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2), 1-22.]
- Hong, E. S., & Park, K. O. (2011). Management Status & Efficient Supports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of Loc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1(2), 87-114.
- [홍은숙, 박경옥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영·유아 지원현황 및 역할 중요도에 대한 전담

교사의 인식과 효율적 지원방안. **유아특수교육연구**, 11(2), 87-114.]

Jo, H. G.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Application of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SFP) for Family Support of Infants &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Doctoral thesis, Dankook University.

[조현근 (2013).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을 위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적용 탐색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Ju, J. K., & Kwak, S. C. (2016). Class Operations and Services Support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20(1), 23-42.

[주정권, 광승철 (2016).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실의 수업운영과 서비스지원 실태. **특수교육논집**, 20(1), 23-42.]

Kim, E. K. (2017). Parent awareness and support needs on early intervention of infant class in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김은경 (2017).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 조기중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지원 요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E. K., & Noh, J. A. (2018). Parents' Thoughts and Support Needs for Infant Classe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Conference*. 1-4.

[김은경, 노진아 (2018).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지원요구.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1-4.]

Kim, J. M., Lim, H. J., & Kim, K. H. (2014). A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6(1), 321-338.

[김정민, 임해주, 김경화 (2014).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경험 및 직무만족도에 따른 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321-388.]

Kim, K. M. (2020). Qualitative Exploration for Family Support Required by Mothers of Infant with Developmental Delay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1(4), 155-189.

[김경민 (Kim Kyoung-min). (2020). 발달지체 영아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가족지원에 대한 질적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4), 155-189.]

Kim, M. R. (2013). Operating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Infant Classroom in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김미라 (2013).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T. Y. (2014). Analysis of Research Studies targeting for Young Children at Risk or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2), 75-98.

- [김태영 (2014). 장애 위험, 및 장애영아 대상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75-98.]
- Koo, H. J., Choi, K. S., & Ahn, S. C. (2014). The Influence of Social Interaction Play on the Social Reaction of Infants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the Mot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4), 221-240.
- [구효진, 최광수, 안승철(2014).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가 발달지체 영아의 사회적 반응행동과 어머니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4(4), 221-240.]
- Lee, E. J. (2016). Job Analysis of Teachers in Charg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DACUM Techniqu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 [이은정 (2016). 장애아 담당교사 직무분석-DACUM 기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H. (2006). A Study on Qualitative Components of the Support System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6(2), 83-107.
- [이소현 (2006).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질적 구성요소: 정책적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6(2), 83-107.]
- Lee, S. H., & Cho, Y. K. (2004). A Survey of Current Practice and Program Needs of Early Intervention in Korea.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9(1), 130-151.
- [이소현, 조윤경 (2004).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목구. **언어청각장애연구**, 9(1), 130-151.]
- Lee, S. H., Cho, Y. K., Choi, Y. H., Lee, S. J., Won, J. L., & Kim, S. J. (2016).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clusive Programs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1(1), 253-281.
- [이소현, 조윤경, 최윤희, 이수정, 원종례, 김수진 (2006). 장애 유아 통합보육 프로그램의 시작과 실행에 대한 시설장 및 교사들의 인식 - 통합 프로그램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1(1), 253-281.]
- Lee, S. H., Kim, J. Y., & Lee, S. J. (2007). Developing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and Policy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1), 351-379.
- [이소현, 김주영, 이수정 (2007).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 **유아교육연구**, 27(1), 351-379.]
- Lee, S. H., Lee, S. H., Yoon, S. A., Kim, J. Y., & Oh, S. R. (2014). A Study of the System of Diagnosis and Support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the Perceptions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s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4(3), 131-169.
- [이소현, 이숙향, 윤선아, 김지영, 오세립 (2014). 자폐 범주성 장애 진단 및 지원 체계 수립 요

- 구: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자폐성 장애연구**, 14(3), 131-169.]
- Lee, S. H., Lee, S. J., Park, H. O., Noh, J. A., & Yoon, S. A. (2014). A Study of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Teachers and Parents to Enhance the Compulsory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9(1), 373-401.
- [이소현, 이수정, 박현옥, 노진아, 윤선아 (2014). 장애유아 의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지원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49(1), 373-401.]
- Lee, S. H., Park, J. Y., Kim, J. M., & Boo, I. A. (2005). A Validation of Early Intervention Support System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heir Famil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9(4), 127-148.
- [이소현, 박지연, 김정미, 부인영 (2005). 0-2세 발달지체 영아와 그 가족을 위한 조기개입 지원 체계의 타당화. **특수교육학연구**, 39(4), 127-148.]
- Lee, S. Y., & Lee, S. Hyun. (2009). A literature review of the Home-based Programs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heir Famil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4), 101-120.
- [이소영, 이소현 (2009). 발달지체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가정-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1999년~2008년 국외논문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9(4), 101-120.]
- Lee, P. Y. (2002). A Study on Variables for Selecting a Special Education Center for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 [이필연 (2002). 유아특수교육기관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iem, Y. O., & Cho, K. S. (2007). Increasing Social Response and Engagement of Toddlers with Developmental Delays through an Family and Peer Interactive Orff Music Activity-Based Program.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3(1), 77-103.
- [임영옥, 조광순 (2007). 가족과 또래 상호작용 촉진 오르프 음악활동중심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영아의 사회적 반응 및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3(1), 77-103.]
- Lin, T. J., Chen, J., Justice, L. M., & Sawyer, B. (2019). Peer interactions in preschool inclusive classrooms: The roles of pragmatic language and self-regulation. *Exceptional Children*, 85(4), 432-452.
- Maye, M., Edmunds, S., Stone-MacDonald, A., & Carter, A. S. (2023). Preparation for adaptation of intensive early intervention for toddlers with ASD: Childcare providers' perspectives on training approach.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51(7), 1181-1188.
- Maye, M., Sanchez, V. E., Stone-MacDonald, A., & Carter, A. S. (2020). Early interventionists' appraisals of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oddl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heir peers in inclusive childcare classroom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50, 4199-4208.
- Nam, K. U., Lee, E. J., & Shin, H. K. (2015). Perceptions of Teachers on Educational Services to Infants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0(3),

- 169-194.
[남경옥, 이은정, 신기현 (2015). 장애영아 대상 교육적 서비스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0(3), 169-194.]
- Nguyen, T., & Hughes, M. (2012). The perspectives of professionals and parents on inclusion in head start program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pprenticeship*, 1(2), 4.
- Nix, R. L., Bierman, K. L., Domitrovich, C. E., & Gill, S. (2013). Promoting children's social-emotional skills in preschool can enhance academic and behavioral functioning in kindergarten: Findings from Head Start REDI.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24(7), 1000-1019.
- Park, D. Y. (2013). A Qualitative Study on Early Intervention Program on Infant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박도연 (2013). 장애영아 조기중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적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Park, E. H., Lee, B. I., & Kim, H. S. (2023). A Study on Needs for Experience and Improvement in Implementation of Individualized Family Support Plan(IFSP)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Seou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4), 183-210.
[박은혜, 이병인, 김현숙 (2023). 서울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의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실행 경험 및 개선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3(4), 183-210.]
- Park, E. H., Lee, B. I., & Kim, H. S. (2023).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4(3), 111-134.
[박은혜, 이병인, 김현숙 (2023). 장애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및 요구 -서울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4(3), 111-134.]
- Park, H. O. (2009).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Early Intervention Practice and the Qualification of Early Intervention Teacher.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2), 117-139.
[박현옥 (2009). 0-2세 장애영아의 조기중재 실행요소 및 전문가 자격 기준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9(2), 117-139.]
- Park, H. O., Lee, J. H., Kim, S. A., & Lee, B. I. (2010) Early intervention at daycare center for free appropriate servi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4), 45-70.
[박현옥, 이정현, 김성애, 이병인 (2010).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육시설 배치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0(4), 45-70.]
- Sandall, S., McLean, M., & Smith, B. J. (2000). *DEC recommended practices in 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Longmont, CO: Sopris West.

West, T. N., Brown, W. H., Grego, J. M., & Johnson, R. (2007). Professionals' judgments of peer interaction interventions: A survey of members of the division for early childhood.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0*(1), 36-54.

Youn, M. K., & Jeong, E. H. (2014). Playfulness and Soci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Visually Impaired Infants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Infa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6*(2), 545-565.

[윤미경, 정은희 (2014). 교사와 시각장애유아 관계에 따른 놀이성과 사회성 발달 분석. **특수아동 연구, 16**(2), 545-565.]

Zheng, Y., Maude, S. P., Brotherson, M. J., & Merritts, A. (2016).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in China from the familie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63*(4), 431-449.

<국문 초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

박정은 · 김건희

[목적]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경험에 대한 장애영아 어머니의 관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배치되었던 장애영아의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제들은 '기다려지는 수업 그리고 아쉬운 수업, 또래와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바람, 특수교육 관련 정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장애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준비된 수업과 특수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교구 활용, 단순하고 흥이 없는 수업에 대해 쓸쓸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영아 어머니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소통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였고 영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또래들과 함께 있는 학급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특수교육을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장애영아학급 운영과 조기중재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수교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시급하고 특히 장애영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기중재 서비스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장애영아조기중재, 장애영아 어머니

논문 접수(Received): 2024. 05. 17. / 심사 시작(Examined): 2024. 05. 17. / 게재 확정(Accepted): 2024. 06. 18.

〈부록〉 심층인터뷰 자료 분석

부호화	하위범주	상위범주	최상위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금은 도움이 되었음 · 짧은 수업 시간과 횟수로 아쉬움 · 영아학급 수업이 짧음 · 만족하는 수업 · 더 하지 못해 아쉬운 수업 	친절하게 도와주는 선생님	수업을 기다리는 장애영아와 어머니들	
	아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수업		
	다정하게 지원하는 교사		
	고마운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 준비가 부족한 수업 · 장난감 위주의 상호작용 없는 수업 · 장애영아를 위한 교구와 프로그램이 부족함 ·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선생님 · 장애영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교재교구 	아이의 발달과 상호작용보다는 장난감 위주의 수업	감사와 실망	기다려지는 수업 그리고 아쉬운 수업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수업		
	수업에 흥이 없어 보이는 선생님		
	장애영아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에게 맞추지만 단편적인 수업 ·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수업 · 피드백이 없는 수업 · 전문가로서 특수교사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경험이 부족한 특수교사	쓰쓸한 수업	
	영혼없이 마주하는 수업		
	평가와 피드백이 없는 알 수 없는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교사가 영혼 없이 마주하는 수업 · 밖에서 봐도 흥미가 없는 단 둘이 앉아 있는 수업 · 그룹 수업을 원함 · 또래를 만날 기회가 없음 · 친구와 같이 할 수 없는 수업 · 장애영아 양육과 교육에 대해 코칭해주지 못하는 교사 · 자녀가 또래와 상호작용 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 받기를 바람 ·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의 수업에 대한 우려 	선생님과 단둘이 하는 수업	또래와의 수업 기대	또래와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바람
	또래와 함께하는 수업을 원함		
	늘 혼자 수업 받는 아이	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	
	도움을 받고 싶은 어머니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함		
	장애영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혼자 정보 알아보기 어려움 · 정보가 부족해 주변 엄마들을 통해 얻음 · 장애아이 어머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음 ·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과 연계되지 않는 체계 · 의료기관과 연계되지 않아 불편함 · 늦게 시작하고 수업 기간이 짧아서 아쉬움 · 장애인정, 조기중재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함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게 된 특수교육	너무 먼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 정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다른 지역 엄마로부터 정보를 얻게됨		
	알려지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찾아 삼만리	
	병원과 구청에서 모르는 특수교육 지원센터		
	늦게 시작하고 짧은 아쉬운 수업	늦어지는 특수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함		
알려지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			